



이제 지구적 규모의 환경대책을 모색 할 때다

최근 우리나라도 환경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일본의 경우도 굉장하다.

지난 11월 6일 일본경제신문사가 주최한 환경세미나가 나고야시의 아이찌현 산업무역회관에서 열렸었다. 이세미나를 보고, 지역적 문제에서 맴도는 한국의 환경문제 시각도 지구규모적 문제로 시야를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일본의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은 60~70년대에 공해문제 운운하면서 환경보전운동을 펼칠 당시는 특정공장의 폐수로 인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받는다거나, 국유림의 벌채로 그일대 야생 동, 식물이 사라진다는가하는 지역적인 환경문제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이지역들이 점점 넓어져 지금에 와서 그 심각성을 인식했을때는 이미 지구적인 규모로까지 확대되어 있었다는 것이 일본환경론자들의 주장이며, 최근 지구환경에 관심이 모아지게된 뒷배경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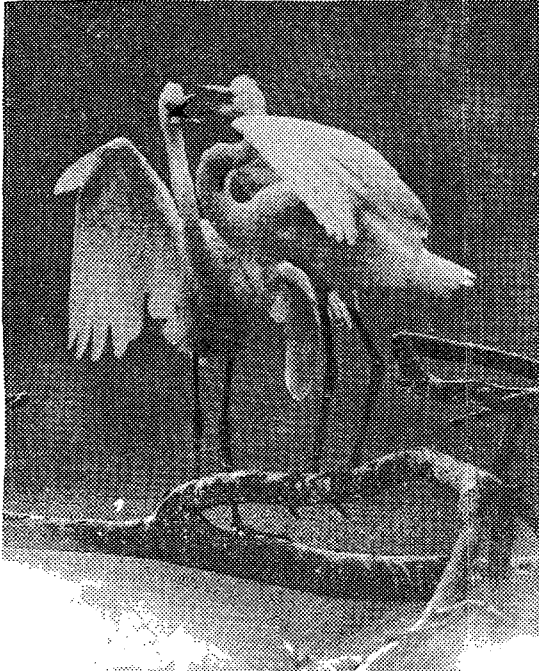
즉, 1970년대부터 약 20년동안 공해문제를 인식해 온세계가 진심으로 온 힘을 쏟았더라면 CFCs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나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화에 대한 불안이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매초마다 도쿄정도의 면적이 사라지고 있는 열대우림 파괴와 매년 일본의 농지면적 (약 540만

오묘한 / 한국야생 동물보호
협의회 이사

ha)만큼이 불모의 땅 사막으로 변해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실화 오존층의 파괴, 열대림파괴에 의한 기상이변등 지구환경을 둘러싼 문제가 아직 완전히 과학적으로 해명된 것도 아니다.



지구 온실화를 둘러싸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이대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등이 대기중에 계속 증가된다면 2003년경에는 평균 1.5~4.5정도로 기온이 상승하리란 설을 내세우고 있다.

또, 남극구멍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계속중이지만 지상에서 다량 방출된 CFCs가스가 성층권에 달하여 연쇄반응식으로 오존층을 파괴하였으리란 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제 한국도 남극대륙에 관측기지를 주둔하고 있는 나라중에 하나이지만 일본팀은 남극의 구멍을 1982년에 벌써 관측한 바 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확장되는 남극 오존층의 뚫린구멍을 통해 지상에 내려쬐는 자외선에 의해 원래 생존해오던 남극의 생물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와 지구의 온실화가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을 녹여 자연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가 하는 조사가 남극에 주둔한 각국의 관측기지에서

필사적으로 관측중에 있다.

지구생성시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때문에 생물들의 적응이 쉬웠지만, 인위적인 영향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는 너무나 급격해 생물들의 적응이 힘들어 멸종의 위기에 놓였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는 1977년 9월, 자연보호 헌장선포 1년전에 공포한 한국야생동물보호 헌장에서 범지구적 시각으로 국제협력의 길을 열도록 해야한다는 항목을 삼입시킨바 있다.

우리들 지역적인 공해문제도 큰 문제이겠지만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국무위원급에 준하는 환경처장으로 격상시키는 등 질을 드높이는 정책적 전환을 보면서 범지구적인 규모로 국제협력에 앞장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